

# BRIEF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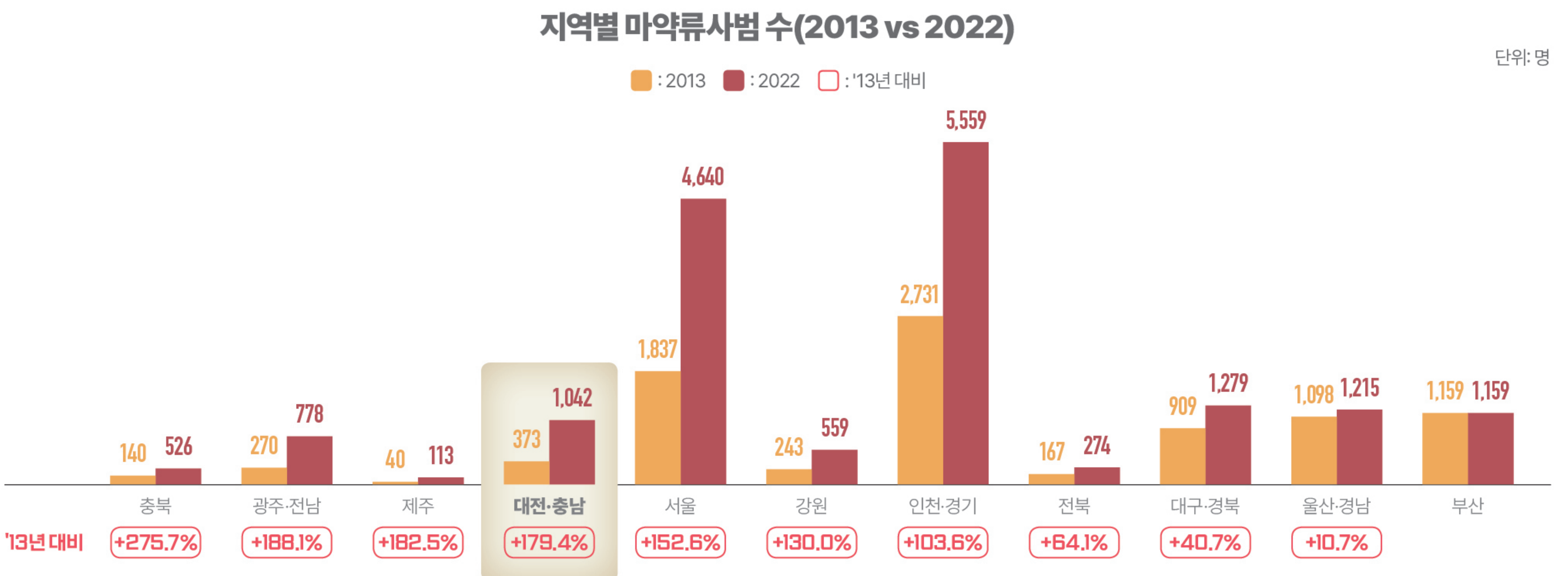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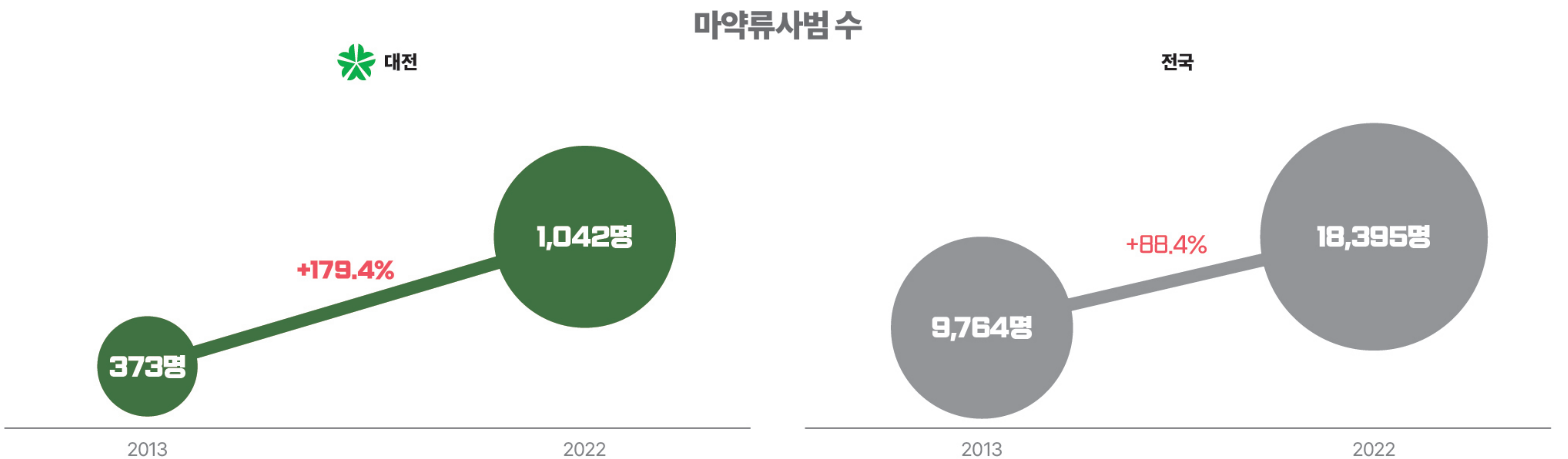
발행인 | 김영진 편집위원 | 류유선·이유라 발행일 | 2023. 10. 31.

## 일상에 파고든 마약 마약류사범, 지역에서 늘어나고 나이는 어려졌다

올해 4월 강남 학원가에서 청소년들에게 마약음료가 유포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. 영화나 해외 뉴스에서나 봤던 마약범죄는 이제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. 유통·수법이 진화하면서 과거 음지에서 벌어지던 마약 거래가 일상 곳곳으로 확대됐다. 국내 마약류사범은 수년간 연평균 1만 명을 훌쩍 넘어 이제 연 2만 명을 달할 것으로 보인다. 특히 10대 청소년, 20대 청년 마약류사범의 증가세가 예사롭지 않다.

### 대전·충남 마약류사범, 10년 새 3배 가까이 늘어

2022년 전국의 마약류사범은 18,395명으로 2013년(9,764명) 대비 88.4% 증가했다. 대전·충남의 마약류사범은 2022년 1,042명으로 10년 전(373명)보다 179.4% 늘었다. 2013년과 비교해 모든 지역에서 마약류사범이 늘어났으며, 가장 많은 곳은 인천·경기(5,559명), 서울(4,640명) 등 수도권으로 나타났다. 그러나 증가율 측면에서는 충북의 마약류사범 증가율(+275.7%)이 가장 높고, 광주·전남(+188.1%), 제주(+182.5%)에 이어 대전·충남은 네 번째로 증가폭(+179.4%)이 크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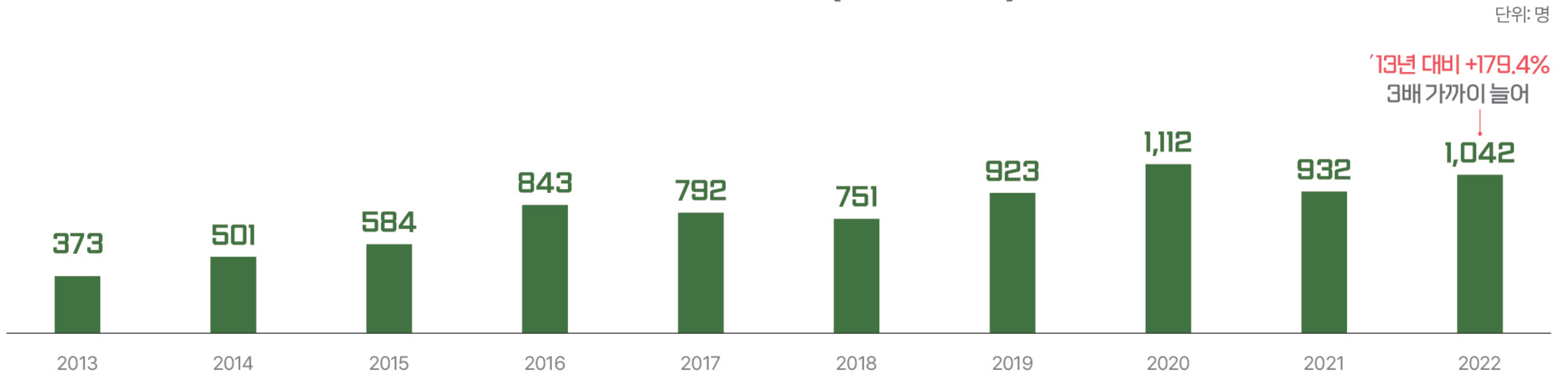
■ 마약류: 마약, 대마, 향정신성의약품을 의미  
 - 마약: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 양귀비·아편·코카인, ② 양귀비·아편·코카인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칼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이거나 이것 외에 함유되거나 해독(害毒)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, ③ ①~②까지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(다만, '한외마약'은 제외)  
 - 대마: 대마초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(단, 대마초의 종자·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)  
 - 향정신성의약품: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들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제대상 물질  
 ■ 출처: 검찰청, 『마약류 범죄백서』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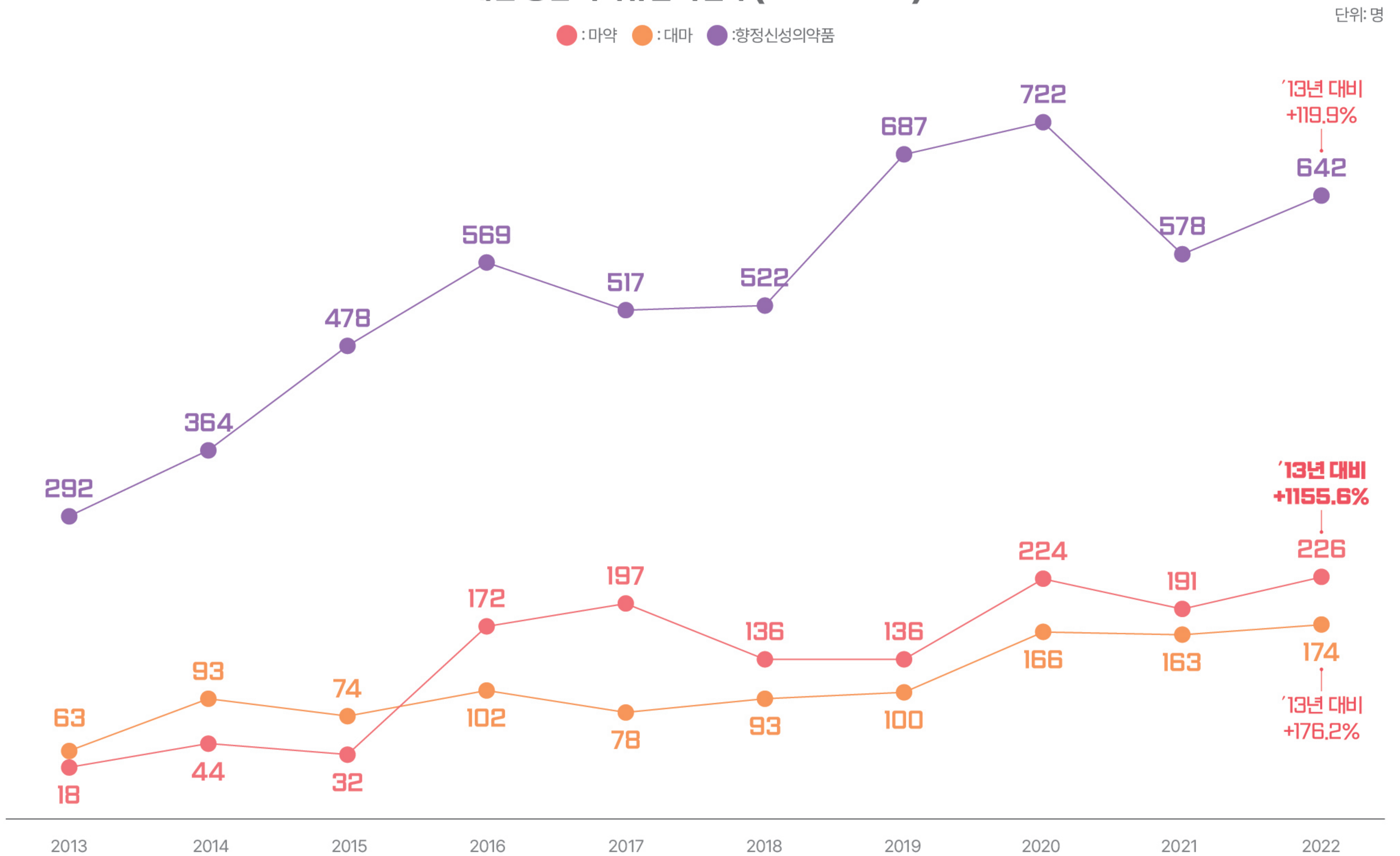
### 가장 많이 적발되는 '향정신성의약품', 가파르게 증가하는 '마약'

지난 10년간 대전·충남의 마약류사범은 2018년과 2021년 소폭 감소했지만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. 2013년 373명에서 2022년 1,042명으로 2.8배(+669명) 늘었다. 마약류는 마약, 대마,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나뉜다. 대전·충남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마약류사범은 향정사범('13년 292명→'22년 642명)으로 전체 마약류사범의 절반을 훨씬 넘는다('13년 78.3%→'22년 61.6%). 2013년 대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 것은 '마약'(+1155.6%)으로 나타났으며, 이어서 대마(+176.2%), 향정신성의약품(+119.9%) 순이다. 마약보다 대마의 비중이 높던 이전과 달리 마약이 대마의 비중을 넘어섰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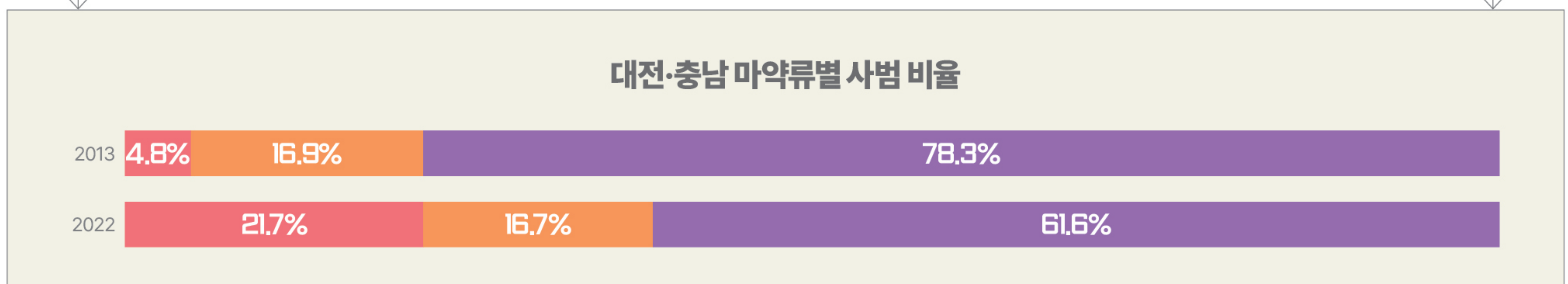
대전·충남 마약류사범 수(2013-2022)



대전·충남 마약류별 사범 수(2013-2022)



대전·충남 마약류별 사범 비율



출처: 검찰청, 『마약류 범죄백서』



전국 성별·연령별 마약류사범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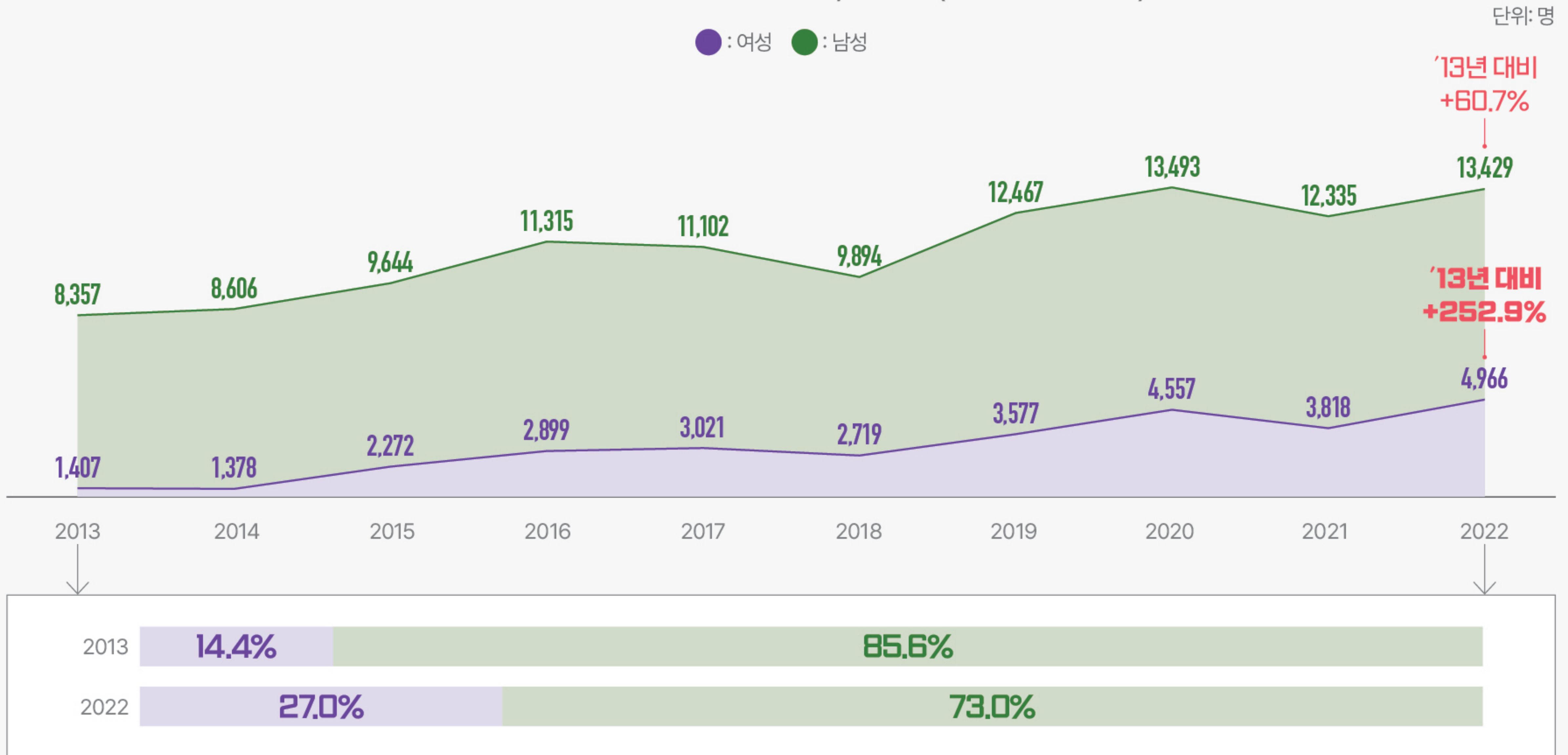
여성 마약류사범 급증하고, 마약류사범 3명 중 1명은 1020세대

마약류사범의 성별·연령별 변화에 주목했다. 다만, 지역별로 세분화한 자료는 『마약류 범죄백서』에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전국 자료를 활용해 살펴봤다.

- 연령별 마약류사범 현황에서 연령미상은 제외했으며, 비율은 연령미상을 제외한 후 산출된 수치임
- 출처: 검찰청, 『마약류 범죄백서』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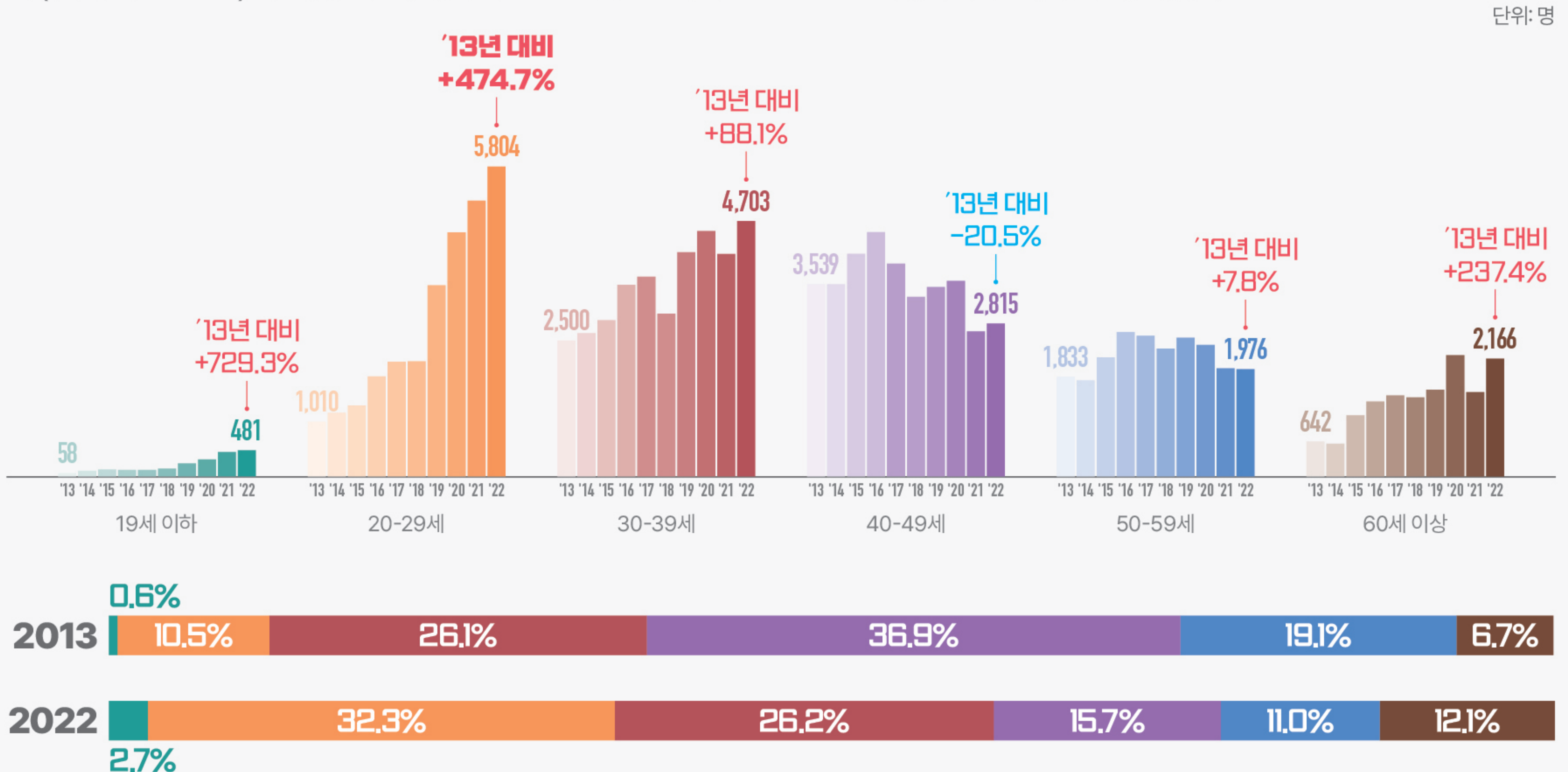
성별 마약류사범 현황(2013-2022)

전체 마약류사범 가운데 남성이 여성보다 여전히 압도적으로 많지만 여성의 비중이 2016년부터 20% 이상을 상회하기 시작했다. 2022년 여성 마약류사범은 4,966명으로 2013년(1,407명) 대비 252.9% 늘어나면서, 전체 마약류사범의 27.0%를 차지했다. 남성은 10년 전보다 60.7% 증가한 13,429명(전체의 73.0%)으로 나타났다.



연령별 마약류사범 현황

10대 마약류사범이 2013년 58건에서 2022년 역대 최다치인 481건으로 가장 가파른 증가세(+729.3%)를 보였다. 다음으로 20대의 증가폭(+474.7%)이 컸다. 반면 40대(-20.5%)는 다른 연령대가 늘어난 것과 달리 줄었다. 10년 전 전체 마약류사범의 62.7%가 40세 이상이었으며, 특히 40대의 비율이 36.9%로 가장 높았다. 그러나 점차 30대 이하(전체의 61.2%)의 비중이 커지면서 2023년 20대가 32.3%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.





#젠더콜로키움 #인문학 #젠더 #채식주의자 #한강 #날기의\_두려움 #에리카\_종

2023년 제1회(통합 26회) 젠더 콜로키움

# 인문학, 젠더를 말하다

## 페미니즘 × 문학읽기



### 주제발표

### 여성 섹슈얼리티의 의미: "채식주의자(한강)"와 "날기의 두려움(에리카 종)"

김명주 충남대 영어영문학과 교수, 여성젠더학과 주임교수

### 지정토론

서한나

보슈(BOSHU) 공동대표, 작가

오민지

책방 정류장 대표

### 일시·장소

2023.11.24.(금) 오후 1시 30분 대전세종연구원 1층 대회의실

### 참여방법

접수기한 11월 21일(화)까지 접수방법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 또는 E-mail 신청

\*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.

문의 |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E-mail. yunheeoh0617@dsi.re.kr TEL. 042)530-3550

